

일본의 ODA 동향 : 총리직할 원조청 설립논의

일본 정부의 ODA 정책수립 및 집행기구 통합안 검토와 관련한 최근동향은 아래와 같음.

1. 관방장관 산하 유식자회의 발족

- 일본 정부는 2005년 11월 정부계 금융기관 통합 폐합 기본방침을 확정하면서, 국제협력은행(JBIC) 엔차관 부문의 통폐합 방안 에 대해서는 총리직할 원조청 설립방안 등 ODA 정책수립 및 집행체제 전반에 대한 관방장관 산하 유식자회의의 추가 검토를 거쳐 금년 3월중 결론을 내리기로 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구로 ‘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’를 설치한 바, 동 검토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합을 개최하고 ODA 개혁 방안을 논의

2. 최근 논의 동향

- 지난 1월 12일 동 검토회의 제3차 회합에서는 외무성, 재무성, 경산성 등 13개 중앙성청이 관

여하고 있는 현 ODA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있어서 총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짐.

- 이러한 총리역할 강화 입장에 따라 차기회합(1.18 및 1.25 예정)에서는 구체적인 조직 통폐합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 1.16 ‘동경신문’은 총리산하 정책집안기구로서 ‘ODA 심의회’를 설치하고, JBIC의 엔차관 부문, JICA 및 외무성의 실시기능(무상원조)을 합친 ‘원조청’을 총리직할로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

- 동 보도에 대해 주일본 대사관이 접촉한 외무성 경제협력국 정책과 니시노 과장보좌는 총리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유식자회의의 위원들간 의견일치가 있었으나, 원조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

- 한편, ODA기능의 총리직할화를 반대하고 있는 외무성은 1월 7일 ‘테러와의 전쟁’, ‘평화구축’, ‘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’, ‘아시아의

경험의 아프리카 전파' 등 4가지 ODA 전략목표를 발표

- 동경신문은 동 전략목표 발표에 대해 외무성이 총리직할화 저지를 위해 외교목표 달성을 위한 ODA 활용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3. 향후 전망

- 관방장관 산하 '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'는 2월말까지 최종의견을 관방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며, 동 의견에 기해 3월중 총리산하 '경제재정자문회의'를 개최, 일본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될 예정
-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여당인 자민당도 자체 검토회를 개최하여 2월말경 결론을 낼 예정이

며, 동 입장도 최종 방침 결정에 반영될 전망

- 한편, 총리산하 ODA 일원화 방안에 대해 JBIC 엔차관 담당부문, JICA 등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, 외무성, 재무성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JICA 오가타 이사장은 1.12 '해외경제협력에 관한 검토회' 회의시 총리산하 일원화 방침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언론 보도
- JBIC은 2000년 일본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협력기금(OECF)가 통합된 조직이나 舊수는 직원과 舊OECF 직원간 인화부족에 따라 舊 OECF 직원(현재 엔차관 부문)들은 일원화 방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.

[자료: 주일본 대사관]